

진도 지산초, 씨앗학교 전통예술발표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국악 축제 한마당 심청전·강강술래 등 전통 예술 무대 위 올려



지산초등학교는 지난 11월 20일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예술꽃 씨앗학교 전통예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지산초등학교는 예술꽃 씨앗학교 2번째 해를 맞이하여 예술꽃들이 활짝 만개하기를 바라며 올해 학생들이 예술적인 소양을 다듬어 온 성과를 진솔하게 보여드리기 위

도가 왜 국악의 고장인지를 알게 해주는 멋진 무대를 선보여서 많은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아이들이 들려준 구성지고 멋있는 국악가락은 여기가 왜 진도인지를 알려주는 랜드마크처럼 느껴졌다. 국악에서 사물놀이와 판소리(입체창).

그리고 의신초에서는 삼도사물놀이 찬조공연도 함께 이루어져 수준 높은 국악무대를 선보였다. 1학년과 2학년이 4번째와 6번째 순서로 나와 보여준 강강술래는 깜찍한 아이들의 모습으로 우리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민요창 방과후 아이들은 오돌또기, 너영나영, 진도아리랑을 불러 국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기량을 보여준 아이들이 모두 모여 무대를 가득 채우며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대미를 장식하였다.

예술꽃 씨앗학교 전통예술발표회에 '심청전'에서 심청으로 출연한 4학년 임수민 학생은 "국악창극을 하면서 대사를 틀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틀리지 않아서 감격스럽고 많은 관객들이 호응을 해주

셔서 감사했다. 국악창극 지도 선생님이 격려를 해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다. 힘들었지만 공연이 잘되어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외국인 원어민 강사는 "한국이 자신이 다니던 미국의 학예회 공연보다 스케일이 크고 아이들의 재능이 놀랍다. 특히 25분 동안 진행된 심청전과 국악고 초청공연은 자신이 가장 즐겼던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형태 교장은 "참가한 내민들이 진도 특히 지산의 아이들의 국악적인 잠재력을 칭찬했다. 이번 발표회로 학생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어져 남도 국악의 예술꽃이 만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산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지원 사업 '예술꽃 씨앗학교' 9기로 선정되어 올해는 2년차로 진도의 훌륭한 문화 자산과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도=조성용 기자

광주 교육의 미래 주제로 원탁 토론회

학부모·학생·교직원 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년을 맞아 앞으로 10년간 주요 정책과제 수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8회 광주교육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열린 이번 원탁토론회의 '2030 광주교육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초·중·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전문직 등 다양한 광주교육구성원들이 참여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로봇공학, 예술을 창조하는 AI 등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옆에 있음을 알리며 △신기술 활용 역량 △AI와 인간의 차별성 △불평등 해소라는 3가지 화두를 제시했다.

1차 토론의 주요 정책으로 ▲진로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학교공간혁신 ▲마을교육공동체 ▲학교자치실현 ▲SW/융합교육 ▲역량중심수업 ▲기초기본교육 ▲임시개선 ▲인성교육 등 다양한 주제가 선정되었다.

2차 토론에서는 10가지 주요 정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이에 따른 주요 방안으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직업

체험센터 구축이 필요하고 진로·직업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시민교육은 학년별 체계적인 교육과정 내실화가 필요하며 학생 권리와 책임의 적절한 균형을 강조했다.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들의 학부모회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를 위해서는 마을 배움 공간을 확대하고 마을로 확장된 학교모습을 제시했으며, 학생 수 급감에 따라 학교공간혁신 방안과 적정규모 학교육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과 SW/융합교육 초·중·고 연계방안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역량중심 수업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참여자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3시간 이 넘는 토론을 실시했다.

특히 광주고등학교 한 재학생은 전체토론에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의 삶과 직업을 가꿀 수 있도록 사회와 학교의 긴밀한 교육과정 연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한 학부모는 "다만 세부 정책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차기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후속 연구 및 토론회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인공지능 강연회



소프트웨어 공개 특강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시대, 교육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광주교육연구원에서 소프트웨어 공개특강을 실시했다.

공개특강 시리즈의 두 번째 강사인 김재인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인공지능 정의와 속성, 한계 등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학교 교육 방안에 대하여 제언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빛어울초 정지훈 교사는 "인공지능이 단순히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오해가 해소되었고, 소프트웨어교육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교직원의 SW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양 함양을 위해 마련한 이번 공개특강은 총 3강을 기획하고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4일에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교육'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연구정보원 이미라 원장은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거점형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1일 진도군 조도중·고등학교에서 3D펜에 관한 직업인강연과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거점형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프로그램도 그 중 하나이다. 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수능이후 고3 힐링프로그램, 토요일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시·군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혜택을 받기 힘든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말에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에게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조도중·고등학교 역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39명으로 전교생이 59명인 입학교로, 진로체험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힘든 학교 중 하나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된 학생들이 원하는 직

업군의 전문인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진행했다.

학생들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직업에 대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담당교사는 "심학고 학생들은 이동이 어려운데 이렇게 찾아와서 직업인 강연과 동시에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니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경중 교육과정과장은 "2020년도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을 맞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전남의 학생들이 진로체험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생이 즐거운 진로체험, 교사도 만족스러운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점형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은 진로체험전산망 '꿈길'을 통해 12월 13일까지 신청 받아 진행된다.

여수고, EBS 교수학습자료 공모전 수상



여수고등학교 이동윤 교사가 제3회 EBS 교사지원센터 교수학습자료 공모전에서 EBS 사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세 번째 맞은 'EBS 교사지원센터 교수학습자료 공모전'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주관한다. EBS

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현장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을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고 있다.

여수고에 따르면, 이동윤(국어)교사는 지난 6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문화개선을 위해 사회현상을 반영한 '신조어 찾기 및 나만의 새말 사전 만들기' 모듈활동과 문법의 '문장 성분'에 대한 내용을 연계한 수업을 선보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제풀이 강의가 아닌 실생활과 연계한 소재로 문법적 지식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수업 모형을 디자인한 이 교사의 이와 같은 열정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교사는 "수업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